



필리핀 한국 상공회의소 뉴스 KOREAN CHAMBER OF COMMERCE PHILIPPINES NEWSLETTER



July 2025 Issue | Vol. 48

SPECIAL POINTS OF INTEREST

- 세계은행, 개발부의 발리사칸: ‘지정학적 · 경제 지형 변화 속에서도 필리핀은 아시아 최고 실적국’
— page 1-2
- BSP, 소형 ‘디지털 중심’ 은행 위한 새로운 지침 준비 중 — page 2-3
- 미국과의 공조 유지할까, 선회할까? 정부와 경제 전문가들 의견 엇갈려
— page 3-6
- 아세안 최고경영자들, 인공지능(AI)에 대한 투자 확대 전망
— page 6
- 에너지부, ADB · NEA와 재생에너지 개발 확대 협력 — page 6-7
- 무역전쟁, 아시아 · 태평양 국가신용등급 위협 — page 7-8
- 코백타동 피노이 법안 관련 DICT: 사이버 보안과 감독은 '타협 불가'
— page 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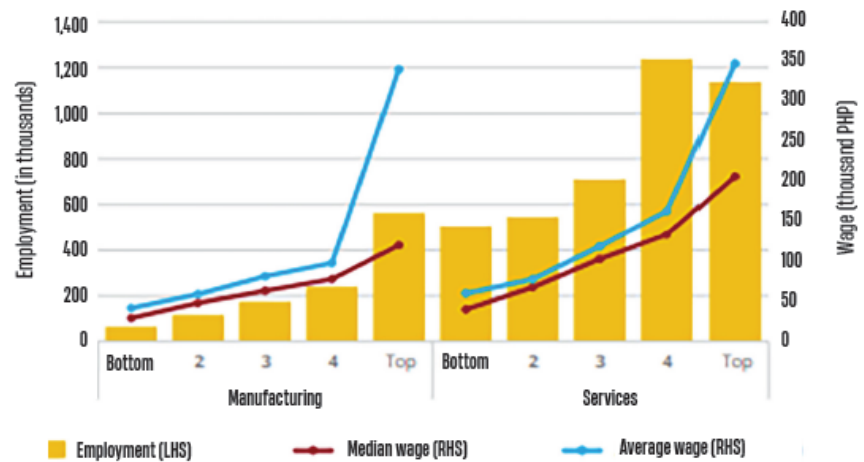
UPCOMING EVENT

- Arangkada Philippines Investment Forum 2025 — page 10

세계은행, 개발부의 발리사칸: ‘지정학적 · 경제 지형 변화 속에서도 필리핀은 아시아 최고 실적국’

July 16, 2025 | Malaya Business Insight

Most productive firms in manufacturing and services pay higher wages and employ more people



Source: PSA ASPBI; World Bank staff calculations

말라야 비즈니스 뉴스 팀

필리핀은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을 극복한 후, 변화하는 지정학적 · 경제적 환경 속에서 국가들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재정의하는 가운데 새로운 성장 경로를 모색하며 아시아의 주요 경제 실적국으로 부상했다고, 국가의 최고 경제계획 책임자가 7월 15일에 발표된 세계은행(World Bank)의 최신 보고서를 인용해 밝혔다.

세계은행의 필리핀 관련 보고서인 ** “Running Uphill: Growth, Jobs, and the Quest for Productivity(오르막길 달리기: 성장, 일자리, 생산성 추구)” **는 고용을 성장 전략의 중심에 둔 새로운 세대의 첫 번째 보고서다.

우연한 성과 아냐

필리핀 경제개발계획부(DepEd) 장관 아르세니오 발리사칸(Arsenio Balisacan)은 보고서 공식 출범 행사에서, 세계은행이 언급한 성과는 결코 우연이 아니며, 어렵게 쟁취한 개혁의 결과라고 말했다.

이번 연구는 지난 15년간의 생산성과 일자리 창출에 관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연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7%로 끌어올리고 수백만 개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핵심 개혁 지점을 제시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빈곤율은 2021년 18.1%에서 2023년 15.5%로 감소했으며, 실업률은 4.3%로 개선되어 정부의 자체 목표보다도 더 나은 수치를 기록했다.

발리사칸 장관은 “이러한 성과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라며, 개혁을 통해 이뤄낸 결과임을 강조했다.

그는 또한 보고서에서 경고한 “자만에 대한 경계”를 거듭 상기시키며, 포용적 성장을 지속하려면 생산성을 높이고 혁신을 촉진하며 기회의 접근성을 확대함으로써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Cont. page 2]

세계은행, 개발부의 발리사칸: ‘지정학적 · 경제 지형 변화 속에서도 필리핀은 아시아 최고 실적국

[Cont. from page 1]

발리사칸 장관은 “모든 폐소 지출은 필리핀 국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가져다줘야 합니다”라며, 교육, 보건, 식량 안보, 디지털 및 지역 연결성에 대한 지속적인 정책 집중과 현명한 투자를 촉구했다.

‘빠른 성장’에서 ‘더 빠른 성장’으로

세계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 곤살로 바렐라(Gonzalo Varela)는 최근 몇 년간 필리핀이 빠른 성장을 이루었으며, GDP를 불과 13년 만에 두 배로 늘렸지만, 2040년까지 중산층 사회로 도약하려면 지금부터는 ‘빠른 성장’에서 ‘더 오래 지속되는 더 빠른 성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필리핀 경제는 지금까지 한 개의 엔진—투자—만으로 빠르게 비행해왔습니다. 더 높은 성장 경로로 나아가려면, 이제는 생산성과 인적 자본이라는 두 엔진을 모두 가동해야 합니다”라고 바렐라는 말했다. 그는 또한 과감한 개혁 없이는 필리핀의 장기적인 성장 궤도가 고소득 국가 수준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2010년 이후 필리핀의 일자리 창출이 대부분 내수 중심의 비무역 부문에 집중됐으며, 지난 10년 동안 제조업 수출 기업의 수는 실제로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이제 과제는 내수 중심 성장 모델에서 벗어나 지역 및 글로벌 무대에서 경쟁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라고 그는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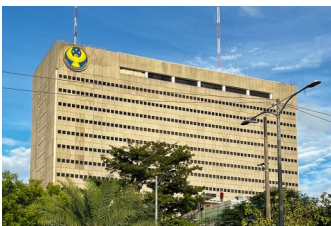
또한, 시장 장벽을 제거하고, 경쟁을 강화하며,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s)과의 통합을 심화시키는 것이 기업의 규모 확대와 혁신을 가능하게 하며, 이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바렐라는 “필리핀의 이야기는 분명히 진보의 이야기입니다”라며, “하지만 고소득 국가로의 전환을 이루려면, 가능성에서 실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 루엘레 카스트로(Ruelle Castro)

Source: <https://malaya.com.ph/business/business-news/world-bank-depdevs-balisacan-ph-top-asian-performer-amid-shifting-geo-economic-landscape/>

BSP, 소형 ‘디지털 중심’ 은행 위한 새로운 지침 준비 중

July 16, 2025 | Aaron Michael C. Sy | BusinessWorld



BW FILE PHOTO

필리핀 중앙은행(Bangko Sentral ng Pilipinas, BSP)은 올해 안에 소형 은행들의 ‘디지털 중심성(digital centrality)’을 평가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자 초안 회람문(draft circular)을 발행할 계획이다.

BSP의 추치 G. 포나시에르(Chuchi G. Fonacier) 부총재는 화요일 기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밝혔다.

“디지털 은행이 있는 반면, 디지털 중심의 전통 은행도 있기 때문에 공정한 경쟁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쟁의 장을 평평하게 만들 필요가 있고, 그런 만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은행들에는 더 많은 자본도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해당 지침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그녀는 또한 이 초안 회람문이 향후 몇 개월 안에 공개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포나시에르 부총재는 2025년 저축은행협회(CTB) 총회 연설에서, 이번 회람문이 저축은행, 농촌은행, 협동조합은행이 디지털 은행과 동일한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단계적(phased)’으로 규제 요건을 설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녀는 “이 회람문은 BSP가 정한 디지털 은행에 적용되는 건전성 요건을 비례적으로 적용하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안건은 아직 중앙은행 금융위원회(Monetary Board)의 심의 대상이며, 현재 초안 작성 중입니다”라고 포나시에르 부총재는 덧붙였다.

저축은행협회 회장이자 카드 중소기업은행(CARD SME Bank) 부회장인 메리 제인 A. 페레라스(Mary Jane A. Perreras)는, 저축은행 업계는 디지털 은행 수준으로 자본을 증대하기 전에 재무 상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디지털 은행과 저축은행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디지털 은행은 물리적인 지점 없이도 운영이 가능하지만, 저축은행은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디지털 은행의 운영 비용은 전통 은행보다 훨씬 낮을 수 있습니다”라고 그녀는 기자들에게 말했다.

페레라스 회장은 업계가 내년까지 디지털 전환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나타냈다. [Cont. page 3]

BSP, 소형 ‘디지털 중심’ 은행 위한 새로운 지침 준비 중

[Cont. from page 2]

디지털 은행의 최소 자본 요건은 현재 **10억 페소(P1 billion)**로 설정되어 있다.

저축은행의 경우, 본점이 메트로 마닐라에 있을 경우 최소 자본금은 10억 페소, 세부(Cebu)나 다바오(Davao)에 있을 경우 5억 페소, 그 외 지역에 위치할 경우 2억 5천만 페소가 필요하다.

농촌은행은 지점 수에 따라 5천만 페소에서 2억 페소의 자본금이 필요하며, 협동조합은행은 1천만 페소의 자본금이 요구된다.

페레라스 회장은 “고객에게 더 나은 혁신적인 상품을 제공하려면 디지털화를 해야 합니다” 라고 강조했다.

업계 전반이 디지털 전환을 위한 재정적 준비가 되어 있는지 묻자, 그녀는 “준비 중입니다. 하지만 완전히 준비되었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다.

BSP는 디지털 은행처럼 운영되거나 디지털 중심 모델을 채택한 기관들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올해 초 디지털 은행 신규 인가 중단 조치가 해제된 이후, 일부 기관에는 적절한 라이선스를 신청하라고 권고하기도 했다.

필리핀 중앙은행은 지난 1월, 3년간 유지돼온 디지털 은행 신규 인가 유예 조치를 해제했으며, 기존 6곳 외에 4곳의 신규 디지털 은행이 필리핀에서 운영할 수 있게 됐다.

한편, 포나시에르 부총재는 중앙은행이 금융 부문에서의 인공지능(AI) 윤리적 활용에 관한 가이드라인도 여전히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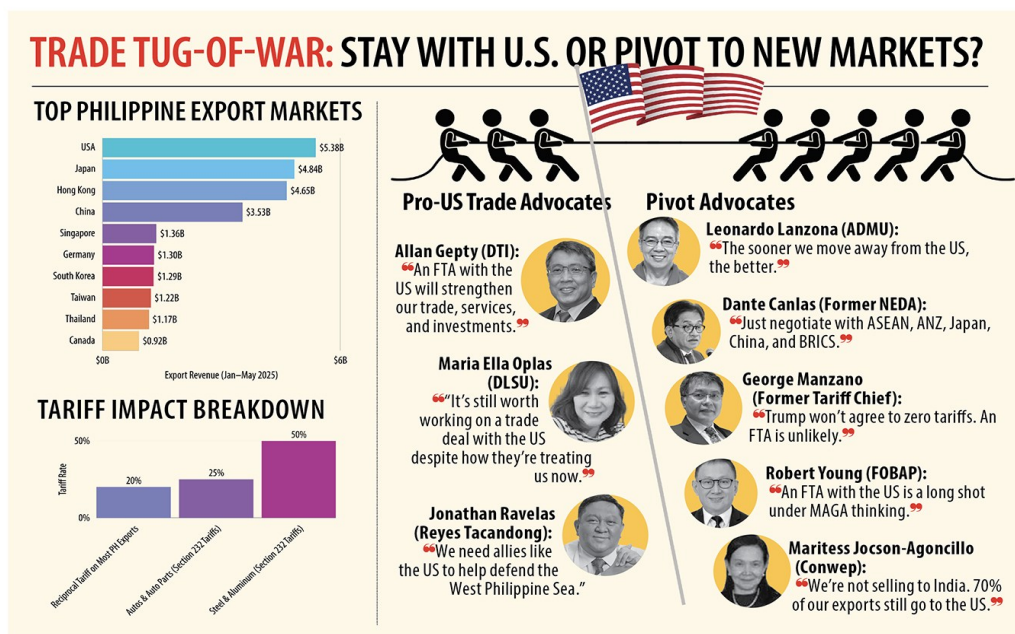
해당 지침은 원래 상반기에 발표될 예정이었으나, 포나시에르 부총재는 “중앙은행이 글로벌 모범 사례에 대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고 설명했다.

그녀는 “이 가이드라인은 윤리적인 AI 활용, 금융 의사결정 시 AI의 정확도 지속 개선, 알고리즘 편향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같은 핵심 영역을 다룰 예정” 이라고 덧붙였다.

Source: <https://www.bworldonline.com/top-stories/2025/07/16/685455/bsp-preparing-new-guidelines-for-smaller-digital-centric-banks/>

미국과의 공조 유지할까, 선회할까? 정부와 경제 전문가들 의견 엇갈려

July 15, 2025 | Andrea E. San Juan | BusinessMirror



[Cont. page 4]

미국과의 공조 유지할까, 선회할까? 정부와 경제 전문가들 의견 엇갈려

[Cont. from page 3]

필리핀 정부는 미국이 자국 무역의 10%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매우 중요한” 무역 파트너로 인식하고 있지만, 일부 필리핀 경제학자들은 브릭스(BRICS: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및 27개국으로 구성된 유럽연합(EU) 등 다른 시장으로 전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최근 미국이 필리핀산 제품에 부과하는 상호 관세를 인상함에 따라, 미국을 무역 파트너로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 필리핀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으며, 한 경제학자는 ** “미국과의 경제적 분리(decoupling)가 필요하다” **는 주장까지 내놓았다.

필리핀 산업통상부(DTI)의 앨런 B. 겐티(Allan B. Gepty) 차관은 월요일 비즈니스미러(BusinessMirror)와의 바이버(Viber) 메시지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미국은 매우 중요한 무역 파트너이며,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은 상품 무역뿐 아니라 서비스 및 투자 분야에서도 양국 간 경제 관계를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그는 미국이 필리핀 전체 무역의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필리핀 전체 수출의 약 17%**가 미국 시장으로 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아테네오 데 마닐라 대학교(ADMU)의 경제학자 레오나르도 란조나(Leonardo Lanzona)는, 미국이 필리핀산 제품에 대해 20%의 관세를 부과한 점을 들어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정부는 이제 미국과의 경제적 연결을 끊고(decouple) 독립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란조나(Lanzona) 경제학자는 이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단순히 국내에서 높은 부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투입재를 바탕으로 수출을 구축하고, 무역을 통해 상호 이익이 가능한 다른 시장을 찾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유럽, 인도 또는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미국으로부터 더 빨리 벗어날수록 더 좋습니다.”

한편, 필리핀은 현재 유럽연합(EU)과 자유무역협정(FTA)을 협상 중이며, ** “협정이 체결되면 특히 농산물, 공산품, 그리고 잠재적으로는 서비스 분야에서 다양한 품목의 수출 증가가 기대된다” **고 란조나는 말했다.

인도와 FTA와 관련해서는, 필리핀은 특히 섬유, 의류, 의약품, 자동차, 정보기술(IT) 서비스와 같은 분야에서 더 많은 상품과 서비스를 수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필리핀이 현재 인도로 의류를 수출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필리핀의 의류 수출업체 연합(Conwep) 사무총장 마리테스 족손-아공실리오(Maritess Jocson-Agoncillo)는 비즈니스미러와의 바이버 메시지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아니요, 우리는 인도에 판매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수출의 70%는 미국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란조나는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농산물, 소비재, 고급 소비재, 공작기계, 귀금속 등도 수출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과의 경우, 그는 이미 체결된 FTA가 관세가 인하되거나 철폐되는 품목을 중심으로 매우 폭넓은 상품과 서비스의 교역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는 농산물, 자원 및 에너지 제품, 제조품, 그리고 마찬가지로 서비스 부문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란조나는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이러한 협정들은 신흥 시장에 대한 더 깊은 접근을 가능하게 하고, 주요 글로벌 파트너들과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며, 지속가능성 및 디지털 무역과 같은 무역·투자 관련 이슈를 보다 포괄적으로 다룰 수 있는 여지를 줄 수 있습니다. 이는 미국에서 나타나는 비합리적인 극우적 보호주의나 민족주의에 제한받지 않으면서도 가능합니다.”

필리핀-미국 자유무역협정(FTA)은 ‘가능성 희박’

한편, 전 사회경제계획부 장관 단테 B. 칸라스(Dante B. Canlas)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행정부 하에서 필리핀이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는 FTA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공식 서한에 따르면, 전 품목에 대해 20% 일괄 관세가 적용된다고 돼 있습니다” 라고 칸라스 전 장관은 본지에 말했다.

그는 대신, 필리핀 정부는 아세안(ASEAN), 호주-뉴질랜드(ANZ), 일본, 한국, 중국, 브릭스(BRICS) 등 다른 그룹과의 협상에 집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관세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산업계 인사 조지 N. 만사노(George N. Manzano) 역시 왜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FTA가 성사되기 어려운지에 대해 설명했다. [Cont. page 5]

미국과의 공조 유지할까, 선회할까? 정부와 경제 전문가들 의견 엇갈려

[Cont. from page 4]

월요일 전화 인터뷰에서 만사노(George N. Manzano) 전 관세위원은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FTA는 일반적으로 양국이 서로에게 무관세를 적용하기로 합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자국의 관세를 0%로 낮추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관세를 0%로 하면, 미국은 우리(필리핀)와의 무역에서 또다시 적자를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트럼프가 상호 관세를 도입한 이유는 그 적자를 없애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니 FTA는 그에게 도움이 되지 않죠.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이 동의할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필리핀 해외구매자협회(FOBAP) 회장 로버트 M. 영(Robert M. Young)도 최근 전화 인터뷰에서 미국과의 FTA에 대해 “가능성이 낮다”고 말했다.

“솔직히 말하면, 미국과의 FTA는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왜냐하면 트럼프의 현재 사고방식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라는 보호주의 기조에 있기 때문이죠.”

영 회장은 미국이 보호무역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는 제조업 기반 국가들과 FTA 체결이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트럼프는 모든 생산 활동을 미국 본토로 다시 가져오고 싶어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FTA를 논의한다는 건, 이익이 발생할 수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불가능한 일입니다.”

한편, 마리아 엘라 오픈라스(Maria Ella Oplas) 드 라 살 대학교(DLSU) 경제학자는 비즈니스미러와의 바이버(Viber) 메시지를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지금 미국이 우리를 대하는 방식과 관계없이, 미국과의 FTA는 여전히 추진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픈라스는 필리핀이 네덜란드와 같은 유럽 국가들을 새로운 수출 시장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만약 제가 특정 국가에 집중하라고 한다면... 네덜란드는 어떨까요?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원예작물, 과일, 견과류, 채소, 바나나 등의 수출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에 상응하는 교역으로, 오픈라스는 태양에너지에 대한 필리핀의 ‘높아지는 관심’을 언급하며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우리는 네덜란드의 실내 수직농업(indoor vertical farming) 기술을 도입할 수 있습니다. 네덜란드가 강점을 가진 수직농업 기술을 통해 ‘그린 시티’를 구축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게다가 그녀는 “특히 클락 푸드 허브(Clark Food Hub)의 개장으로 네덜란드 투자자들을 더 많이 유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 서비스 기업인 레예스 타칸동 앤드 컴퍼니(Reyes Tacandong & Co.)의 수석 고문인 조너선 라벨라스(Jonathan Ravelas)는, 필리핀은 자국 수출품을 필요로 하는 새로운 국가들과 새로운 관세 체계에 기반하여 수입 측면에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시장을 향해 “지평을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라벨라스는 “EU 국가들로 방향을 틀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필리핀이 미국으로부터 멀어질 수는 없다고 말하며, “우리엔 방위가 필요하고, [서필리핀해(West Philippine Sea)]를 방어하는 데 도움을 줄 동맹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라벨라스는 필리핀이 관세 협상에서 보다 나은 결과를 얻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미국산 밀이나 대두 같은 농산물이 사료용으로 사용되는 축산업에 있어 더 저렴한 상황을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 저렴한 수입품을 협상할 수 있다면, 이는 우리의 인플레이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라벨라스는 덧붙였다.

지난 목요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페르디난드 R.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2025년 8월 1일부터 모든 필리핀산 제품에 대해, 부문별 관세와는 별도로, 20%의 관세만 부과하겠다. 더 높은 관세를 피하려고 환적된 상품은 해당 더 높은 관세를 적용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Cont. page 6]

미국과의 공조 유지할까, 선회할까? 정부와 경제 전문가들 의견 엇갈려

[Cont. from page 5]

이에 대해 게프티(Gepty)는 본지에 “20% 관세는 필리핀산 제품에 대해 양국 간 합의가 8월 1일 이전에 체결되지 않을 경우 적용되는 ‘필리핀 전용 상호 관세(country-specific reciprocal tariff)’ ” 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다만 앞서 발표된 행정명령에서는 반도체와 같은 특정 품목에 대해서는 예외가 적용된다” 고 전했다.

미국과의 무역 협상팀에 속한 필리핀 무역산업부 차관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추가적으로,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자동차 부품 등 기존의 섹션 232(Section 232) 관세가 적용되는 제품들은 이번 상호 관세에는 영향을 받지 않지만, 별도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은 25%,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은 50%)”

필리핀 통계청(PSA)의 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여전히 필리핀의 최대 수출 시장으로 자리하고 있다. 2025년 1월부터 5월까지의 기간 동안 필리핀의 대미 수출액은 총 53억8천만 달러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같은 기간 필리핀 전체 수출 수익 342억 달러의 15.7%에 해당한다.

미국 다음으로 필리핀의 주요 수출 대상국은 일본, 홍콩, 중국, 싱가포르, 대한민국, 독일, 대만, 캐나다, 태국 순으로 나타났다. 2025년 1월부터 5월까지 필리핀의 대일본 수출액은 48억4천만 달러, 홍콩은 46억5천만 달러, 중국은 35억3천만 달러였다. 이어 싱가포르가 13억6천만 달러, 독일 13억 달러, 한국 12억9천만 달러, 대만 12억2천만 달러, 태국 11억7천만 달러, 캐나다 9억2천만 달러를 기록했다.

Image credits: [BM Graphics: Ed Davad](#) | Source: [PSA](#)

Source: <https://businessmirror.com.ph/2025/07/15/pivot-or-stay-with-u-s-government-economists-split/>

아세안 최고경영자들, 인공지능(AI)에 대한 투자 확대 전망

July 16, 2025 | Lisbet K. Esmael @lisbetesmael - @inquirerdotne | Philippine Daily Inquirer



The logo of the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SEAN)
(Photo by MOHD RASFAN / AFP)

필리핀 마닐라 —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의 주요 기업 경영진들이 디지털 시대에 자사 운영을 강화하기 위해 인공지능(AI)에 대한 추가 투자를 모색하고 있다고 한 연구가 전했다.

화요일에 발표된 IBM 비즈니스 벨류 연구소(IBM Institute for Business Value)의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시장의 약 2,000명의 최고경영자(CEO)들이 이 중 210명은 아세안 지역에 속함—은 향후 2년 내 AI 투자 규모가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IBM 컨설팅 아세안 지역 매니징 파트너인 아브라함 토마스(Abraham Thomas)는 이러한 추세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국가의 정책 등으로 인해 기업의 디지털 전환 여정에는 여전히 여러 도전 과제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세안의 경영진들은 AI를 통해 투자 수익률(ROI)을 입증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는 동시에,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장기적인 역량에도 지속적으로 투자해야 하는 상황” 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러한 균형 잡기는 각국의 상이한 규제와 국경 간 데이터 흐름에 대한 일관되지 않은 기준 등으로 인해 디지털 환경이 단편화된 아세안 지역에서는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고 덧붙였다.

Source: <https://business.inquirer.net/535895/asean-ceos-seen-to-pour-more-investments-in-ai>

에너지부, ADB · NEA와 재생에너지 개발 확대 협력

July 15, 2025 | Joann Villanueva | Philippine News Agency

마닐라 — 에너지부(DOE)는 재생에너지(RE) 개발을 더욱 촉진하기 위해 마닐라에 본부를 둔 아시아개발은행(ADB) 및 국가전기화청(NEA)과 협력하여 ‘원스톱 입찰(single window auction)’ 방식을 추진하고 있다.

에너지부 마일렌 카폰콜(Mylene Capongcol) 차관보는 화요일 파시그지에서 열린 필리핀 태양광 및 에너지저장 연합(PSSEA) 창립 15주년 기념행사에서 “재생에너지 개발을 위해 NEA의 가용 설비를 하나의 패키지와 완전한 정보와 함께 입찰에 부칠 예정” 이라고 밝혔다. 그녀는 또한 “해당 설비들은 이미 송전 개발 계획(transmission development plan)에 포함되어 있다” 고 덧붙였다.

[Cont. page 7]

에너지부, ADB · NEA와 재생에너지 개발 확대 협력

[Cont. from page 6]

카뎅콜 차관보는 거래 자문 역할을 맡게 될 ADB로부터 세부 제안서와 정책 틀(policy framework)을 기다리고 있으며, 이후 국가전기화청(NEA)과의 양해각서(MOA) 서명이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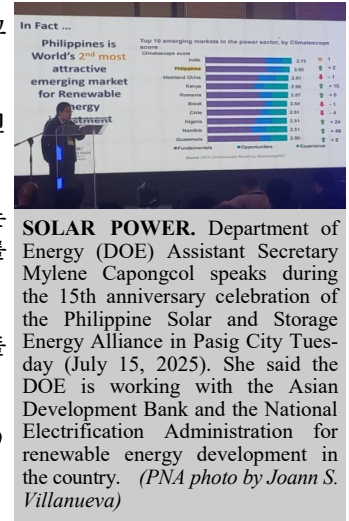
그녀는 이번 프로그램에 대해 낙관적인 전망을 내비쳤으며, 필리핀이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매력적인 재생에너지 시장으로 평가받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정부는 2035년까지 국가 전체 에너지 믹스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을 약 35%로, 2040년까지는 50%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까지 재생에너지는 필리핀 전체 에너지 믹스의 약 22%를 차지하고 있다.

카뎅콜 차관보에 따르면, 현재 필리핀 전역에는 약 544개의 태양광 프로젝트가 활발히 운영되고 있으며, 이들 프로젝트의 총 설치 용량은 약 2,425메가와트(MW)에 달한다.

이러한 전력 용량은 건물 옥상형, 지상형, 수상형 태양광 발전원을 통해 공급되고 있다고 그녀는 덧붙였다. (PNA)

Source: <https://www.pna.gov.ph/articles/1254372>



SOLAR POWER. Department of Energy (DOE) Assistant Secretary Mylene Capongcol speaks during the 15th anniversary celebration of the Philippine Solar and Storage Energy Alliance in Pasig City Tuesday (July 15, 2025). She said the DOE is working with the Asian Development Bank and the National Electrification Administration for renewable energy development in the country. (PNA photo by Joann S. Villanueva)

무역전쟁, 아시아 · 태평양 국가신용등급 위협

July 17, 2025 | Luisa Maria Jacinta C. Jocson | BusinessWorld



보고서에서 S&P는 “관세와 전쟁은 아시아 · 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국가신용등급에 대한 위협을 더욱 증가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국제 무역 마찰과 군사적 갈등은 2025년 아시아 · 태평양 국가들의 신용 건전성에 점점 더 큰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S&P는 아시아 · 태평양 국가들이 최근까지는 ‘긍정적인 모멘텀’을 보였으나, 현재는 상당한 리스크에 직면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러한 위협 요인들은 외부 부문과 재정 부문을 통해 국가 신용 지표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덧붙였다.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하거나 흑자 규모가 작은 국가들—인도,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을 포함해—는 국가신용등급을 지탱하는 외부 지원이 약화될 수 있다”고 S&P는 밝혔다.

S&P는 현재 아시아 · 태평양 지역 대부분의 국가신용등급이 투자적격 등급(investment grade)이며, “BBB”에서 “BBB+” 사이에 분포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21개국의 국가신용등급 전망 중 긍정적(positive)인 전망을 유지하고 있는 국가는 필리핀, 인도, 몽골 3개국뿐이다.

지난해 11월, S&P는 필리핀의 장기 신용등급을 “BBB+”로 유지했으며, 이는 정부가 목표로 삼고 있는 “A” 등급보다 한 단계 낮다. 단기 신용등급 역시 “A-2” 등급을 유지했다.

S&P 글로벌은 또한 필리핀의 등급 전망을 ‘안정적(stable)’에서 ‘긍정적(positive)’으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긍정적인 전망은 향후 2년 내에 필리핀의 재정 및 거시경제 여건이 지속적으로 개선될 경우 신용등급이 상향 조정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S&P는 여전히 보호무역적인 관세 정책이 아시아 지역 국가들의 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오는 7월 말까지 여러 국가들과의 무역 협상을 마무리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고 밝혔다.

필리핀은 미국으로부터 기존에 제안된 17%보다 높은 20%의 상호 관세(reciprocal tariff)를 부과받았으며, 필리핀 정부는 이에 대해 더 나은 조건을 협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Cont. page 8]

무역전쟁, 아시아·태평양 국가신용등급 위협

[Cont. from page 7]

“S&P 글로벌 레이팅은 미국 행정부의 정책 실행과 이에 대한 가능한 대응, 특히 관세와 관련된 부분에서 높은 수준의 예측 불가능성이 존재하며, 이는 전 세계 경제, 공급망, 신용 조건에 잠재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S&P는 남중국해, 대만 해협, 북한을 언급하며 지정학적 갈등의 지속을 주요 리스크로 지목했습니다.

“S&P는 최근의 사건들이 긴장이 고조될 수 있음을 보여주며, 신중하게 처리되지 않을 경우 판단 착오로 인해 어느 누구도 의도하지 않은 사태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러한 고조되는 지정학적 긴장은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은 에너지 및 관련 수입품에 대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S&P는 이러한 리스크가 현실화될 경우,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재정 상황이 더욱 악화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경제 성과가 악화되면서 정부 재정은 악화될 것입니다. 특히 한국, 대만, 일본과 같이 수출업체들이 주요 납세자인 국가에서는 정부 세수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분석가들 또한 이러한 글로벌 불확실성이 필리핀이 ‘A’ 등급을 확보하려는 목표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및 지역적 리스크는 외부 또는 재정적 취약성을 심화시킬 경우, 필리핀이 ‘A’ 등급으로 나아가는 데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아테네오 데 마닐라 대학교의 경제학 교수인 레오나르도 A. 란조나(Leonardo A. Lanzona)는 이메일을 통해 밝혔습니다.

정부는 2028년까지 ‘A’ 등급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필리핀은 일본의 신용평가사인 R&I(Rating and Investment Information, Inc.)와 JCR(Japan Credit Rating Agency)로부터는 ‘A’ 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 3대 신용평가사로부터는 아직 최고 투자등급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S&P 글로벌 레이팅으로부터는 “BBB+” 등급, 피치(Fitch Ratings)로부터는 “BBB” 등급, 무디스(Moody’s Ratings)로부터는 “Baa2” 등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필리핀은 전통적으로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해 왔으며, 이는 수출보다 수입이 많다는 의미입니다. 이 격차는 해외 송금, BPO(비즈니스 프로세스 아웃소싱) 수익, 외국인 자본 유입에 의존해 메우고 있습니다.” 라고 란조나 교수는 설명했습니다. 다만, 그는 이러한 유입이 글로벌 불확실성 속에서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란조나 교수는 정부가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고, 재정 규율을 유지하며, 자본시장을 심화시킬 수 있다면 ‘A’ 등급 달성은 여전히 실현 가능한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Source: <https://www.bworldonline.com/top-stories/2025/07/17/685729/trade-wars-threaten-asia-pacific-sovereign-ratings/>

코넥타동 피노이 법안 관련 DICT: 사이버 보안과 감독은 '타협 불가'

July 17, 2025 | Dominique Nicole Flores | Philstar.com

마닐라, 필리핀 — 정보통신기술부(DICT)는 '코넥타동 피노이(Konektadong Pinoy) 법안'이 적절한 심사 없이 외국 자본이 지배하는 단체가 국내 인터넷 시스템에 접근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미 의회를 통과한 이 법안은, 외국 자본이 지배하는 단체들이 정부의 충분한 감시나 유해 요소에 대한 강력한 안전장치 없이 참여할 수 있는 ‘허점’이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DICT는 7월 16일 성명을 통해 “DICT는 국가 안보 기관들과 협력하여 외국 자본이 지배하는 어떤 단체도 다층적인 심사와 지속적인 모니터링 없이 핵심 디지털 인프라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보장할 것” 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안 제8조에 따르면, 외국 단체가 필리핀의 데이터 전송 부문에서 운영하려는 경우, 1991년 외국인투자법(Foreign Investments Act) 및 공공서비스법(Public Service Act)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Cont. page 9]



Image by methodshop from Pixabay

코넥타동 피노이 법안 관련 DICT: 사이버 보안과 감독은 '타협 불가'

[Cont. from page 8]

법안은 데이터 전송을 인터넷이나 물리적 케이블과 같은 통신 채널을 통해 기기 간에 메시지와 파일을 전송하는 방식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통령의 서명을 기다리고 있는 이 법안은 필리핀의 데이터 및 인터넷 요금을 낮추기 위해 서비스 제공업체 간의 경쟁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입법자들은 이를 실현하는 한 가지 방법으로, 데이터 전송 산업의 특정 영역에서 입법 프랜차이즈 요건을 폐지해 신규 제공업체의 시장 진입을 용이하게 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세그먼트란 데이터를 위치 간에 전송하는 인프라의 모든 부분을 의미하며, 이는 코어나 백본(Backbone)에서 시작해 지역 또는 로컬 네트워크를 가로지르는 ‘미들 마일(Middle Mile)’, 그리고 최종 사용자에게 직접 연결되는 ‘라스트 마일(Last Mile)’ 까지 포함합니다.

그러나 DICT는 국가 안보가 “타협할 수 없는 우선순위”임을 강조했습니다. DICT는 이 법안이 외딴 지역까지 연결성을 확대함으로써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백본 및 코어 인프라는 기존의 소유권 및 보안 관련 법률, 즉 공공서비스법(Public Service Act)과 사이버범죄예방법(Cybercrime Prevention Act)의 적용을 계속 받습니다.” 라고 DICT는 밝혔습니다.

입법 프랜차이즈 요건에 대한 우려와 관련해 DICT는 이는 통신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DICT는 “특정 데이터 전송 구간에 대한 프랜차이즈 요건을 폐지한 것은 특히 외곽 지방과 소외 지역의 통신망 구축을 가속화하기 위한 신중한 논의 끝에 결정된 것으로, 통신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성명에 따르면, 관련 단체들은 여전히 적절한 허가를 받아야 하며, 보안 심사를 통과하고 DICT 및 국가통신위원회(NTC)의 감독을 따라야 합니다.

이 법안은 데이터 전송의 미들 마일(Middle Mile)과 라스트 마일(Last Mile)에 ‘오픈 액세스(Open Access)’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기업들이 독자적인 인프라를 구축하는 대신 기존 네트워크를 공유할 수 있게 하여 비용 절감을 도모합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사이버 보안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DICT는 보안이나 공공의 복지를 희생하면서까지 규제 완화를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DICT는 “우리는 ‘인터넷은 특권이 아니라 권리’라는 핵심 목표를 다시 한 번 확인합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DICT는 또한 이번 법안이 국가통신위원회(NTC)의 감독 권한을 “현대화하고 강화” 함으로써 디지털 시대의 도전에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DICT는 현재 법안의 시행령(IRR)을 마련 중이며, NTC가 단순한 “수동적 허가 기관”이 아닌 실질적인 규제 기관으로서의 권한을 갖출 수 있도록 설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DICT는 현재 법률 전문가 및 시민사회단체와의 협의를 진행 중이며, 연결성을 개선하고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추가 제안도 환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Source: https://www.philstar.com/business/2025/07/16/2458422/dict-konektadong-pinoy-bill-cybersecurity-oversight-remain-non-negotiable](https://www.philstar.com/business/2025/07/16/2458422/dict-konektadong-pinoy-bill-cybersecurity-oversight-remain-non-negotiable)

Contact Us

**Korean Chamber of Commerce
Philippines, Inc. (KCCP)**
Unit 1104 Antel Corporate Center, 121
Valero St., Salcedo Village, Makati City
(02) 8885 7342
info@kccp.ph | www.kccp.ph

Be part of the **14th Arangkada Philippines Annual Forum**

ARANGKADA PHILIPPINES
INVESTMENT FORUM 2025

SEPTEMBER 25-26, 2025 | MARRIOTT GRAND BALLROOM

JOIN US FOR TWO IMMERSIVE DAYS OF

POLICY DISCUSSIONS
Hear from top policymakers, business leaders, and experts

BREAKOUT SESSIONS
Choose from three focused discussions on priority sectors

BOOTH EXHIBITS
Visit exhibits by government agencies and private companies

INDUSTRY TALKS
Hear invaluable insights from industry experts and government leaders

 **REGISTER NOW!**
Visit arankadaphilippines.com/forum2025 to view the agenda, learn about our new Immersive Investors Pass, and secure your slot!

ORGANIZED BY:

www.arankadaphilippines.com  /Arangkada Philippines  /arankadaphilippines  /ArangkadaPH  /Arangkada Philippines

필리핀 외국 상공회의소 연합(Joint Foreign Chambers, JFC)의 6개 회원 기관은 2025 아랑카다 필리핀 투자 포럼(Arangkada Philippines Investment Forum 2025) 등록이 개시되었음을 기쁜 마음으로 알려드립니다!

아랑카다 필리핀 포럼은 2012년 이래로 필리핀의 투자, 경제 개혁, 포용적 성장에 대해 고위급 인사들이 논의하는 대표적인 플랫폼으로 자리 잡아왔습니다. 올해 포럼은 2025년 9월 25일부터 26일까지 파사이 시 마리오트 그랜드 볼룸(Marriott Grand Ballroom)에서 개최되며, 정부, 민간 부문, 학계, 언론계의 주요 인사 수백 명이 한자리에 모여 투자를 유치하고 유지하며 비즈니스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전략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번 포럼은 JFC가 선정한 7대 ‘유망 산업 분야(빅 위너)’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며, 해당 분야는 ▲농업비즈니스(agribusiness), ▲인프라(infrastructure), ▲제조 및 물류(manufacturing and logistics), ▲관광(tourism), ▲핵심 광물(critical minerals), ▲창의 산업(creative industries), ▲정보기술 및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IT-BPM)입니다.

포럼 첫째 날에는 주요 정부 및 기업 리더들의 기조 연설과 7대 분야별 분과 세션이 진행되며, 둘째 날에는 비즈니스 간 및 비즈니스-정부 간 독점 네트워킹 기회, 제품 및 비즈니스 시연 부스 전시, 정부 서비스 및 투자 관련 주제를 다루는 산업별 심층 토론이 마련되어 참가자들에게 유익한 인사이트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후원 및 자세한 정보는 Arangkada Philippines 브리퍼(Briefer), 후원 등급표(Sponsorship Tier), 후원 확인서(Confirmation Form)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KCCP 사무국(전화: (632) 8885-73-42 / 이메일: info@kccp.ph)**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Links:

[BRIEFER] <https://drive.google.com/file/d/1H4eAL1QQNvfXsRkLFk7nZ-XeptMF3YNK/view>

[SPONSORSHIP] https://drive.google.com/file/d/1v5Kbk5-iaHTLV_WqTbnF5Q1k_Dv78u2/view

[CONFIRMATION]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dXuqm9Xp--Ad4SWHdowgcrc_OGtu0y-PZCQvnwSbvt2Xuraw/viewform



당신의 새로운 시작을 함께합니다

bdo.com.ph

We find ways®

BDO Unibank is regulated by the Bangko Sentral ng Pilipinas. <https://www.bsp.gov.ph>
For concerns, please visit any BDO branch near you or reach us thru any of the channels listed on our website: <https://www.bdo.com.ph/consumer-assistance>.
Deposits are insured by PDIC up to P500,000 per depositor. The BDO, BDO Unibank & other BDO-related trademarks are owned by BDO Unibank, Inc. All Rights Reserved.